



# 연세대학교 산업포장학과 개설 경과보고 및 포장산업계 지원호소

Packaging education of university

포장산업계의 오랜 바람이던 4년제 대학에 포장학과 개설이 연세대학교의 산업포장학과 신설로 결실을 보게 된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산업포장학과가 속한 디자인학부의 수시모집 응시율이 5.4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일견 포장학과와 출발이 순조로운 듯 하나 내막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의 문제는 대학측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성질의 것들이지만 어떤 문제는 우리 포장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는 것도 있습니다. 차체에 연세대학교 산업포장학과가 탄생하게 된 경위와 당면한 문제점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포장산업계의 이해와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 1. 설립경위

한국포장학회에서는 5년 전부터 4년제 대학에 포장학과를 설립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강릉대학교를 필두로 경기대학교, 경상대학교, 건국대학교의 총장들을 직접 면담하여 포장학과 설립을 촉구하는 한편 포장산업계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이외 수도권의 다른 3개 대학에도 실무자를 통하여 포장학과 설립을 권한 바 있었으나 수도권 대학 증원 불허 방침에 의해 번번히 좌절되곤 하였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연세대학교에서 포장과 관련이 깊은 화학공학을 전공한 김우식 교수가 총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연세대학교도 대상학교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작년 9월 중순에는 포장학회의 전 총무이사인 필자와 사업이사인



이명훈

한국포장시스템연구소 소장



이종현 박사가 연세대 원주캠퍼스를 방문하여 교무처장과 기획실장에게 포장학과 설립에 관한 브리핑을 시행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답변을 얻어낸 바 있습니다. 다행히도 화학공학을 전공한 교무처장과 경영학을 전공한 기획실장이 포장에 대해 이해가 빠르고 전망을 밝게 보고 있어 포장학과 설립문제는 급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12월 말에는 포장학회의 신동소 회장, 김청부회장 그리고 필자 3인이 김우식 총장을 방문하여 포장학과 설립에 대한 필요성과 포장업계의 바램을 전달하고 호의적인 반응을 얻어내었습니다.

금년초에 포장학과 설립문제는 또 하나의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학칙에 의해 단독학과의 설립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디자인학부를 설립하고 내부에 산업디자인학과와 산업포장학과를 둔다는 학교의 방안 때문이었습니다. 이같은 구도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외부 추진위원들의 반발이 연세대학교측과 마찰을 빚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과대학이 있는 서울캠퍼스에는 수도권 증원불허 방침으로 어렵고 원주캠퍼스에는 포장학과를 오라고 손짓하는 학부나 단과대학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달리 뾰족한 대책이 없어 설립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디자인분야와 분리하도록 노력한다는 실무자의 다짐을 받고 기본구도에 동의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금년 7월 말 경에 최종적으로 한 학년에 105명 정원의 디자인학부를 신설하는 것으로 교육부의 승인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9월에는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약 30%에 해당하는 30명을 수시모집으로 선발하였으며 수능시험후 정시모집에서 나머지

70%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 2. 문제점

그동안 필자를 포함하여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의 주요 보직교수들로 “연세대학교 산업포장학과 개설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커리큘럼과 중장기 발전계획도 어느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가지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넘어가는 것이 있는데, 학부 내에서 공정한 경쟁의 룰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년도 1학년 신입생들은 일단 올해에 모두 디자인학부생으로 선발되며 2학년이 되기 전에 산업포장 전공과 산업디자인 전공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 전공선택이 이루어지지만 만약 어느 한 전공으로 대거 몰릴 경우에는 성적순으로 결정하게 되며 이 경우 한 전공이 최소한 40명은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히 두 개과가 서로 우수한 학생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하지만 올해 최초 신입생 모집시 30명은 예체능계로 별도로 모집하게 되며 이들은 대부분 디자인을 지망하는 학생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포장분야는 시작부터 불리한 구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산업포장학과가 디자인학부에 속해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응시생들은 포장디자인분야로 오인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올해 수험생들에게 산업포장학과 성격과 전망등을 최대한으로 올바르게 홍보하고, 선발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는 산업포장학의 밝은 전망과 비교우위를 제대로 알리는 길 밖에 없다고 판단

됩니다. 하지만 이마저 쉽지 않은 것은, 교육부의 승인이 늦어지는 바람에 수시모집 대상자에 대해서는 홍보할 기회가 없었고 정시모집 대상자에게도 제대로 홍보할 시간이 부족하며 우리의 대응 태세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작 필자가 연세대측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전임교수를 내년 하반기에 채용한다는 학교의 방침입니다. 산업포장학과를 이끌 수 있는 전담교수가 없이는 선발된 학생들에게 산업포장학을 제대로 홍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포장산업계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명분과 체제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을 포장분야로 유도하기도 힘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서 최초로 꽃피운 소중한 싹을 그냥 시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 포장산업계의 결집된 의지와 힘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든 포장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도움을 간절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 3. 지원 호소내용

우선 주위의 모든 분들에게, 특히 고3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에게 산업포장분야의 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신설되는 연세대학교 산업포장학과 지원을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자가 생각하는 산업포장의 전망에 대한 설명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환경, 물류, 정보통신 등 최근의 핫 이슈와 포장은 깊은 관련이 있으며 이로 인해 작년도에 신산업·미래산업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도 포장분야는

GDP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장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반면 우리는 겨우 GDP의 2%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급속한 성장이 예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분야의 4년제 대졸자가 약 3,500명 가량 부족하다는 통계조사로 미루어 볼 때 취업 전망이 무척 밝다는 것입니다.

셋째, 4년제 최초의 입학생들은 향후 이 분야의 지도자급 인재로 육성하기 위하여 선진국 유학기회 대폭확대 등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를 것이라는 점입니다.

대략 위와 같은 요점으로 설득하여 주위의 우수한 수험생들을 포장분야로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보다 우수한 학생들을 산업포장학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산업디자인학과와 차별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포장산업계의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재작년에 이미 10개 단체장이 최초로 설립되는 4년제 대학 포장학과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서면으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약속을 보다 구체화하여야 할 시기입니다. 디자인 학부 신입생을 대상으로 포장분야의 밝은 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구체적인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포장산업계가 실험실습 기자재나 장학금 마련 등의 실제적인 지원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포장학회에서는 올해내로 4년제 대학 최초 포장학과 개설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소중한 싹을 조심스럽게 꽃 피우는 마음으로 우리 포장인 모두가 갓 태어난 산업포장학과 지원대열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감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